

바로크연구

The Baroque Studies

제 6 권

2023. 12

한국바로크학회

바로크연구

Baroque Studies

제 6 권

2023.12

한국바로크학회

바로크연구

-제6권-

목 차

김선욱	과학혁명과 바로크 예술 : 『인생은 꿈이다』에 나타난 새로운 수학과 과학의 개념	5
한국바로크학회	정관	25
한국바로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35
『바로크연구』	논문투고 요령	39
한국바로크학회	연구윤리 규정	47

과학혁명과 바로크 예술 : 『인생은 꿈이다』에 나타난 새로운 수학과 과학의 개념*

김선옥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Kim, Seon-Uk(2023), “Scientific Revolution and Baroque Arts : New concepts of mathematics and science in *Life is a dream*”, *Baroque Studies*, 6.

In *Life is a dream*, Calderón de la Barca, the most prominent playwright of Baroque theater, theatrically demonstrates that the mathematical and scientific methodologies of the old world had been replaced by the new mathematical and scientific methodologies of the 17th century. *Life is a dream* shows the process in which a new view of science eventually wins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Basilio, who bent on astrology, and Segismundo, based on reason and experience, a new thought tide. Calderón de la Barca illustrates the clash between astrology as an archaic astronomy and the new scientific revolutionary perceptions that opposed it, and ultimately illustrates the transition to a new worldview af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and epistemology of the Baroque period, which are conflicting in *Life is a dream*, are incorporated into Calderon's theatrical work.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Basilio and Segismundo, *Life is a dream* represents the complex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ew scientific methodology that emerged af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conclusion, through *Life is a dream*, Calderón de la Barca criticized the pseudo-science of astrology, King Basilio for misinterpreting the stars using the old science, and showed the public, through the device of theater, the complex process by which the old pseudo-science of Aristotle and Ptolemy was replaced by the new scientific methodology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Key Words : *Life is a dream*, Scientific Revolution, New concepts of mathematics and science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2A21086297)

김선욱(2023), 「과학혁명과 바로크 예술 : 『인생은 꿈이다』에 나타난 새로운 수학과 과학의 개념」, 『바로크연구』, 6.

바로크 연극의 대표적인 극작가 칼데론 데 라 바르카는 『인생은 꿈이다』에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구시대의 수학적·과학적 방법론이 당시의 새로운 수학적·과학적 방법론으로 대체되었음을 연극적으로 보여준다. 『인생은 꿈이다』는 점성술이라는 고대 천문학에 경도된 바실리오와 새로운 사상 조류인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히스문도의 갈등에서 결국 새로운 사상 조류가 승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준다. 칼데론 데 라 바르카는 구시대 천문학으로서의 점성술과 이에 반발하는 새로운 과학혁명의 인식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과학혁명 이후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17세기 당시 충돌하고 있던 구시대적인 점성술과 과학혁명으로 발현한 새로운 과학철학 및 인식론이 어떻게 칼데론 데 라 바르카의 연극 『인생은 꿈이다』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칼데론 데 라 바르카는 『인생은 꿈이다』라는 연극을 통해서 점성술이라는 의사 과학, 낡은 과학을 이용해 별을 잘못 해석한 바실리오 왕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의 구시대 의사 과학이 16, 17세기 과학혁명의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대체되는 복잡한 과정을 연극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주제어 : 『인생은 꿈이다』, 과학혁명, 새로운 수학과 과학의 개념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과 예술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예술이 서로 다른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예술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상상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과학은 예술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주관의 개입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거의 없어 보인다. 과학과 기술은 산업과 같은 실용적 발전에 기여하지만, 예술은 주로 인간 내면의 심성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학문적인 분리가 보편적인 생각이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공고해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과 예술을 별개의 분야로 인식하는 학문적인 성향은 산업

사회에 접어든 19, 20세기 초에 정착된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 로마 시대부터 과학과 예술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²⁾ 상호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융복합 현상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하고 빈번해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과 인문학 · 예술의 융복합 현상이 있었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기의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이는 인문학과 예술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났으며, 역시 동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학, 과학, 해부학, 건축학 등 과학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이후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과학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³⁾의 시기는 예술적으로 바로크 시기와 거의 동시대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과 화려하게 전개한 바로크 예술 사이에는 상호 간의 융복합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바로크 시기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타나면 그것을 자신의 학문 분야나 예술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16세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과학은 중세기의 천문관과 우주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우주관과 세계관을 선보이며 이를 실제로 증명했는데, 당시 유럽의 예술과 문학은 이렇게 새롭게 관찰되고 증명된 과학관과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학과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이는 연극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연극은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일반 대중들과 가장 밀착된 예술 분야이다. 당시 문학 작품을 읽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당시 미술 작품과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그러나 연극은 글을 몰라도, 많은 돈이 없어도, 극장에 가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인 장르였다. 이러한 연극 역시 당시 새롭게 부상한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우주관과 세계관을 작품에 담아냈는데, 이러한 경향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전해져 새로운 과학체계가 은연중에 공고해지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 어원적으로도 과학과 예술은 하나의 뿌리를 가졌다.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τέχνη, techne)’는 예술과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통합한 개념이었다. 그러다 로마인들에 의해 ‘아르스(ars)’로 변용되어 예술 혹은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를 출판한 1543년부터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가 나온 1687년 사이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과학혁명의 시대이다. (이종필, “과학혁명의 배경”)코페르니쿠스, 튀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오 등의 기여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영향을 끼쳤으며, 고대 및 중세의 천문관과 우주관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바로크 연극의 가장 대표적인 극작가인 스페인의 칼데론 데 라 바르카(Calderón de la Barca) 역시 17세기 가장 유명한 연극 『인생은 꿈이다』에서 과거의 수학적 방법론을 넘어서는 당시의 새로운 수학·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작품에서 점성술이라는 옛 학문을 하는 바실리오와 새로운 사상 조류인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히스문도의 대결에서 결국 새로운 사상 조류가 승리한다. 16세기와 17세기는 과학혁명으로 인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인생은 꿈이다』는 구학문으로서의 점성술과 이에 반발하는 새로운 과학혁명의 인식이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과학혁명 이후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은 작품에서 충돌하고 있는 점성술과 새로운 과학관의 갈등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혁명 및 바로크 시기의 과학철학과 인식론이 어떻게 칼데론 데 라 바르카의 『인생은 꿈이다』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구(舊)학문으로서의 점성술

『인생은 꿈이다』에서 주인공 세히스문도 왕자의 아버지 바실리오 왕은 여러 가지 학문에 정통한 인물로 소개된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군주라기보다는 학자 군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1막 6장에서 바실리오가 궁에 들어올 때, 그의 조카들이자 왕위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아스톨포와 에스트레야가 바실리오를 맞으며 그를 “현인 탈레스시여”(580행), “유클리드 박사시여”(580행)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바실리오의 학자로서의 명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실리오는 자신이 정치보다는 학문, 그중에서도 특히 “정교한 수학”(614행)이라는 학문에 경도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대들도 알고 있듯이,
과인은 과인의 학문으로
박사라는 별명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오.
세월과 망각에도 불구하고,
티만테스⁴⁾의 화풍과

4) 티만테스(기원전 5세기~4세기 초)는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이며, 비록 현전하는 작품은 없지만,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의 주제로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

리시포스⁵⁾의 조각품들이
천체라는 경계 안에서
나를 위대한 바실리오라 환호하고 있소.
그리고 역시 그대들은
내가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공을 들인 학문이
바로 정교한 수학이라는 것도 알 것이요.
과인은 수학에 많은 시간을 바쳤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해야 할
재판과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랴오.
그러나 과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현재처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과인은 오늘날의 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준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있소. (604~623행)⁶⁾

이처럼 바실리오는 왕이기 전에 학자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신은 특히 “정교한 수학(matemáticas sùtiles, 614행)”에 제일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 정교한 수학은 점성학을 하기 위한 도구였다.

태양의 광선으로 빛나며,
달의 순회에 의해 나뉘는
하얀 눈의 원형,
유리의 천개(天蓋),
별들이 장식하고
기호들이 수 놓인
그 다이아몬드의 구체,
그 결정체처럼 맑은 지구가
바로 과인의 가장
공들인 연구 분야였소.
다이아몬드 종이와
사파이어 공궤에
금빛 찬란한 줄에 맞춰

다. 『인생은 꿈이다』의 작가 칼데론 데 라 바르카는 이 그리스 화가를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두 다 주면서 아무것도 주지 말기 *Darlo todo y no dar nada*』에서 티만테스의 일대기를 극화시킨다.

5) 리시포스는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중의 한 명이다.

6) 본 논문의 인용문은 Pedro Calderón de la Barca(1986), *La vida es sueño*, Ed. de Ciriaco Morón, Madrid: Letras Hispánicas에서 취한 것이며,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문은 행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각기 다른 글자로,
 하늘이 우리의 운명이
 순탄한지 역경스러운지를 쓰는 곳이 바로 과인의 책이랴오.
 과인은 그것을 아주 빨리 읽을 수 있다오.
 그리하여 과인은 그들의 빠른 움직임,
 그들의 진로 및 황로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오. (624행~643행)

이처럼 바실리오스는 점성술의 대가였기에 인간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바실리오스의 점성술은 “정교한 수학(matemáticas sùtiles, 614행)”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확률에 의한 과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에서의 수학이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 나오는 “원형”, “천개”, “구체”는 천체를 지탱하는 구체들로, 물질적인 실체(existencia material)를 가지며 “유리”와 같은 결정체로 간주된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에게는 구체들이(las esferas) 물질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결정체였다(Reale & Antiseri 1992, 204). 이러한 용어들을 통하여 작품은 바실리오스가 구시대 과학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 인용문에 앞서 셰히스문도는 “그 유리와 결정체 / 태양을 깨부수고”(333~334행)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했다.

지구와 우주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용어였으며,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 체계에 부합하는 특정한 천문학적인 개념을 나타낸다(Sambursky 1970, 205-207). 이 체계는 고정된 별들에 의해 제한되는 우주를 가정하며, 불변하는 지구가 중심이 되며, 천체들이 원형체로 이루어진 구체에 위치하며, 그 움직임은 균일한 원운동이라고 여겼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태양이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태양이 움직인다는 관점은 작품 초반 클라린의 “태양이 다른 쪽 수평선 쪽으로 떠날 때”(48행)라는 대사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천문학을 바탕으로 고대 점성학을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프톨레마이오스는 『테트라비블로스 *Tetrabiblos*』⁷⁾에서 천문적 주기와 움직임을 발견하고, 별자

7) 『테트라비블로스』는 르네상스 시기까지 천 년 이상 점성학 분야에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다.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편찬된 『테트라비블로스』는 9세기에 아랍어로 번역되어 중세 이슬람 점성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적이 되었으며(Jim Tester(1987), *A history of western astrology*, New Hampshire: Boydell and Brewer, p. 57),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중세 기독교 교리와 통합되었으며, 이후 16세기 르네상스 점성술의 기초 법칙을 규정하는데 크게 기인했다(Rutkin, H. Darrel(2010), “The Use and Abuse of Ptolemy’s *Tetrabiblos* in

리의 움직임이 인간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며, 나아가 천체들이 어떻게 인간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별자리에 따라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 예측된다는 출생 천궁도(Horoscope)를 자세히 풀이한다. I권 2장에서 그는 성장이나 행동 양식의 주기를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천체의 주기에 반응한다고 했다(Ptolemy 1940, I, 7-19). 그리고 III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출생 점성학을 다루며,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시작점이 임신이나 출생의 순간이며, 아기가 자궁을 떠날 때 즉 하늘의 적절한 구조에서 빛을 향해 나올 때, 기질과 성향과 신체의 형태가 갖춰진다고 했다(Ptolemy 1940, III, 221-227).

바실리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점성술의 이론에 따라 세히스문도가 탄생할 때의 별자리를 보고 그가 잔인한 폭군이 된다는 것을 예견했다. 그는 세히스문도가 태어난 후 아내 클로릴렌가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가 억압적이고(763행)과 폭군적인 왕(764행)의 지배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을 탐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의 출생일이 도래하자,
불길한 예언이 가득했었다오.
그런 전조는 지금까지 없었소.
핏빛으로 물든 태양이
격분해서 들어와
달과 결투를 벌이는데,
[...]
바로 그런 전조하에서 그가 태어난 것이오.
[...]
하늘은 어두워졌고,
건물들은 흔들렸고,
구름은 돌로 비를 뿌리고,
강은 피로 물들었소.
이 행성에서 이렇게
끔찍한 징조 속에서,
세히스문도는 태어나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인다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태어났따오.

Renaissance and Early Modern Europe”, In *Ptolemy in Perspective: Use and Criticism of his Work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Ed. de Alexander Jone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135-147). 그러나 17세기 들어와 근대 물리학과 천문학의 등장으로 점성술에 대한 학술적인 권위는 붕괴되었다.

[...]
 과인은 과인의 학문으로,
 모든 것을 보았소.
 세히스문도는 무례한 인간이 될 것이며,
 가장 잔혹한 왕자가 될 것이며,
 가장 불경스러운 군주가 될 것이며,
 [...]
 과인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과인의 흰머리가
 그에게 용단이 되어 굴복하는 모습을 보았소.
 [...]
 그래서 과인은 별자리가 주는
 운명을 믿고,
 [...]
 태어나면서 야수가 된 그를
 감금하기로 결정했소. (676~735행)

별자리에 능통한 바실리오스는 이렇게 불길한 별자리를 보고 행동할 수 밖에 없었음을 말한다. 그에게 별자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실리오스는 우주에서 수학적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신성에 의해 쓰인 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신의 계획이 담긴 별자리를 분석하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들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기호들이 돌아져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천체,
 그 유리구 세계는
 바로 과인이 오랫동안
 가장 공들인 연구 분야라오.
 그곳은 하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순탄한지 험난한지를
 다이아몬드 종이와
 사파이어 공책에,
 금빛 찬란한 줄로
 서로 다른 글자로 써 내려가는 과인의 책들이라오. (628~639행)

과학 혁명기의 천문학자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케플러에게 자연은 수학적 규칙으로 질서 정연하며,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는 신의 창조라는 이성적인

조직을 반영하는 기하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계산하면 신이 배열한 구조물이 드러난다는 것이다(Capelle 1958, 424). 갈릴레이 역시 1623년에 출판된 『분석자 *The Assayer*』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철학은 우리가 눈앞에 계속 펼쳐 있는 이 매우 큰 책(우주)에 쓰여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이 쓰인 글자를 아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수학 언어로 쓰여 있고, 글자는 삼각형, 원, 그리고 다른 기하학적 무늬들이다(Reale & Antiseri 1992, 250).

하늘의 책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과학자들은 천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미적분과 수학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바실리오스는 천체의 배열이 인간의 사건을 예고한다는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우주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이라는 책을 읽는 목적은 매우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 “지구 중심적(Geoétrica)이고 인류 중심적(Antropocéntrica)”이다(Capelle 1958, 425). 우주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신에 의해 창조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주관이자 세계관이다. 반대로 근대과학자들은 인간을 더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처럼 갈데론의 『인생은 꿈이다』의 초반에 나타나는 바실리오스의 모습은 구시대적인 의사(疑似) 과학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갈데론은 작품의 중반부터 이러한 구시대적인 과학관에 균열을 주면서 16세기 이후 과학혁명의 시작과 함께 정립되던 새로운 과학관과 구시대적인 과학관의 갈등 양상을 연극적으로 보여준다.

3.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관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생은 꿈이다』의 1막에 나타난 우주관에 대한 단상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관을 바탕으로 한 고대 및 중세의 우주관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2막이 시작하면서 이런 기존의 우주관이 흔들린다.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에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성술의 세계는 우선 바실리오 스스로에 의해서 와해되기 시작한다.

바실리오스 천체의 배열에 전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의 함

수로서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히스문도의 탄생을 둘러싼 불길한 별자리의 배열을 보고 바실리오는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태도는 근대 과학이 형성되는 시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사건들은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결합하기 때문이다(Rossi 1992, 328).

그는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 그에게 영향을 끼칠지언정 / 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않을 것”(789~791행)이라는 의심을 하고 별자리에 대한 자신의 독해를 실험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비록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그것을 의심하는 회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이성주의와 연결되는 측면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실리오의 의심은 진리의 기준을 감각이나 믿음에서 비롯되는 중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연역적인 방법론이나 이론으로 파악하려는 근대 이성주의 철학과 근대 과학적 관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바실리오는 자신이 천문학자이자 점성술 학자로서 별자리가 세히스문도에게 내린 가혹한 운명, 즉 아버지인 자신을 무릎 꿇리고 폭군이 된다는 운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바실리오의 의심은 근대 과학적인 관점이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유효했던 우주론과 점성술의 개념을 대체한 16, 17세기의 과학적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점성학의 지식체계에 몰두했던 바실리오는 새로운 과학적 조류의 영향으로 실제로 점성술 예언의 사실 여부를 실증해 보고 관찰하려는 과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칼데론은 점성학을 신봉했던 바실리오가 구시대의 의사 과학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면서, 전통적인 관측 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과학적·철학적인 가정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걸작을 구성했다(Santo-Tomás 2009, 72).

2막에서 바실리오는 탐 속에 감금된 세히스문도를 궁으로 데려와 그가 왕자임을 밝히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본다. 지금까지 과학이라 믿어왔던 별자리에 대한 진리를 의심하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실한 진리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하늘이

[...]

누그러지거나 완화되는지,
최소한 용기와 신중함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 싶은 것이오.
인간은 별자리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들 말하잖소.
이것이 바로 내가 실험해 보고 싶은 거라오. (1102~1112행).

이러한 바실리오의 결정은 고대 및 중세의 점성술에 대한 태도와 근대 과학적인 태도가 충돌하는 장을 만든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의사 과학과 근대 과학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 칼테론은 연극과 환상이라는 바로크적인 장치를 작품에 도입한다.

2막에서 클로탈도는 왕의 명령으로 세히스문도를 재워서 궁으로 데려온 과정을 바실리오에게 보고한다. 클로탈도가 세히스문도에게 인간의 학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독수리를 “풀어진 혜성”(1043행)에 비교한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혜성이라는 개념은 16, 17세기 천문학이 겪고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일단, “풀어진 혜성”은 어떤 행성에도 종속되지 않는, 즉 ‘결정 구체(esferas cristalinas)’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궤도를 따르는 혜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중세의 천체 모델인 ‘결정 구체’의 개념은 무너지고, 대신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하늘을 상상하기 시작했을 보여준다. 이는 고대와 중세의 정설인 결정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천문학적 관점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경험”(1122행)이라는 또 다른 과학적인 사고관이 드러난다. 경험을 경험적인 증거로 언급한다. 클로탈도는 세히스문도를 재워서 데려올 마취약의 효능에 대해 다음처럼 단언한다.

전하,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논쟁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
천 가지 독성을 실험해 보았사옵니다.
약효에 대한 효력과 증거는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8) 결정론적 구체(esferas cristalinas)는 태양계의 각 천체가 일정한 구조 또는 궤도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구형의 결정 구조를 말하는 중세적인 우주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의심하는 일을 잠시 보류해 두고, (1000~1021행)

여기에서 클로탈도 주장의 근거는 경험을 통한 추론이다. 경험은 실험과 시험을 의미한다. 과학혁명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다. 근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험적인 과학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험과 증명이 필수적이다. 실험에 기반을 둘 때, 바실리오는 자신의 이론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 방법이 바로 세히스문도에게 마취약(작품에서는 “독성”으로 표현)을 사용하여 궁궐로 옮기고 그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의 실험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하는 것은 경이로운 것”(301행)이라고 말하며, 실험을 통해 인간이 자유의지와 도덕으로 별자리가 정해준 운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과 실재를 결합한다.

이렇게 바실리오는 실험적 방법을 기반으로 과학의 자율성을 확립함으로써, 철학과 신앙과 대립하게 된다. 바실리오는 형이상학적인 이념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진실한 논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성주의의 방법적 회의론에서 비롯된 의심을 통해 근대적 과학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바실리오는 중세의 미술사들과 점성술사들로부터 멀어져간다. 현대 과학의 개념은 믿음이나 종교에서 독립적이지만, 과학혁명의 시기에는 과학이 “신 플라톤 신비주의, 밀폐된 전통, 마술, 연금술, 점성술이 얽혀 있는”(Reale & Antiseri 1992, 175)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바실리오의 이런 변화는 그가 바로 이런 과도기적 시대의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바실리오의 실험은 과학적 실험과 이념적 영역이라는 두 분야가 혼합된 상태로 아직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바실리오의 실험에 의해 평생을 탐에 간혀 죄인처럼 지내던 세히스문도는 마취제의 힘으로 잠을 자는 사이 궁으로 옮겨져 왕자 대접을 받으며 깨어난다. 바실리오의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세히스문도는 새로운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신이 실제로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껏 권력을 누리며 즐긴다. 갑자기 자유와 권력을 얻은 그는 자신에게 왕자답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하는 하인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고, 자신에게 인사하러 온 아스톨포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아름다운 에스트레아와 로사우라에게 자신의 성적 본능을 드러낸다. 나아가 왕자답게 선행을 하라고 조언하는 클로탈도와 아버지인 바실리오 왕에게도 무례하게 대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급기야는 클로탈도를 죽이

려하고 이를 말리는 아스톨포와 칼싸움까지 하게 된다.

바실리오가 예견한 세히스문도의 운명이 확인되었다. 왕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졌다. 결국 바실리오는 점성학이 예견한 별자리의 운명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를 약초로 재운 다음 다시 탑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바실리오는 왕자였다가 다시 죄수가 된 세히스문도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세히스문도가 탑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그에게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하여 그가 궁에서 일어난 일을 꿈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런 점에서 2막은 바실리오가 세히스문도에게 실시한 근대적인 실험과 관찰의 공간이며 동시에 바로크적인 환상과 연극의 공간이 된다. 여기까지 보면 바실리오의 실험은 점성술의 승리로 결론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반전이 일어난다. 다시 탑에서 잠을 깬 세히스문도는 자신이 궁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환멸과 허망함을 느끼며, 2막 마지막에서 스페인 연극에서 가장 유명한 독백을 한다.

인생은 무엇일까? 광난이다.
인생은 무엇일까? 환상이고,
그림자고, 허구이다.
가장 큰 즐거움은 사소할 뿐.
모든 인생은 꿈이요,
꿈은 꿈일 뿐인 것을. (2182~2187행)

나아가 그런 환멸적이고 바로크적인 허망한 세계를 극복하는 도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비록 꿈일지라도 선행해야 한다는 클로탈도의 충고를 따라서 세히스문도는 이전에는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동물 같은 상태”(2149행)를 억압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선행만이 현실과 인생이라는 거대한 꿈속에서도 존재에 대해 진정하고 유일한 가치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김선욱 2003, 273).

클로탈도 세히스문도여, 비록 꿈일지라도,
 선행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네. (퇴장한다.)
세히스문도 그래,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다면,
 이 격노, 이 열망,
 이 동물 같은 상태를
 억제해야 해. (2146~2151행)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자기 존재의 난폭하고 무례한 측면을 억누를 수 있게 된 세히스문도는 지금부터 합리적인 사람으로 행동한다. 이처럼 2막에서 바실리오가 만들어 놓은 꿈이라는 장치는 세히스문도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추론하고 사고하게 만드는 촉매제 기능을 한다. 인생이 꿈이라는 생각으로 표현되는 바실리오와 클로탈드의 실험을 통해 세히스문도가 완벽한 왕자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히스문도는 열정과 이성이라는 두 개의 존재의 층위가 충돌할 때마다 의지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그의 열정의 지시를 이성으로 극복한다.

이어진 3막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과 열정과 신중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히스문도의 모습이 보인다. 바실리오가 정당한 폴란드의 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폐위하고 러시아에서 온 아스톨포와 에스트레야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을 알게 된 폴란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들은 세히스문도가 간혀있는 탑에 와 세히스문도를 풀어주며 자신들의 반란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한다. 세히스문도는 다시 한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는다.

오! 하느님, 맑소사! 그대들은 내가
다시 한번 덧없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광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내가 이 회미한 어둠 속에서
바람에 날아가 버릴
이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을
보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내가 이 환멸과
접촉하기를 원하는가?
[...]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대들은 운명에 얽매인
나를 다시 한번 잘 보시오. 나는 이제
인생은 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림자들아, 물러서거라. (2307~2322행)

그러나 이미 이성과 도덕을 갖춘 세히스문도는 꿈이 주는 환멸과 허

망함을 깨닫고, 꿈꾸는 자가 언제 깨어나 꿈이 끝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권력은 잠시 빌린 것일 뿐이며, 언젠가 미래의 알 수 없는 시점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인생은 너무나 짧으니
우리 꿈을 꾸어보자꾸나. 영혼이여,
다시 한번 꿈꾸게 해다오. 그러나 이번에는
즐거움이 가장 클 때
깨어나게 된다는
충고를 명심해야 하오.
그걸 알고 산다면,
환멸도 덜할 테니.

[...]

모든 권력은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하니,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하오.
신하들이여! 그대들의 충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요.
내 그대들을 외국인의 억압에서
해방해 주겠노라! (2358~2376행)

그리하여 반란에 앞장서기로 하면서 세히스문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반란군에 사로잡힌 클로탈도가 세히스문도와 바실리오와 전쟁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바실리오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세히스문도는 처음에 그를 배은망덕한 배신자라고 비난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클로탈도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바실리오에게 가라고 한다.

클로탈도, 나는 그대의 용기가
가상하고, 고맙소.
그대는 그대의 왕을 섬기러 가시오,
우리는 전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2414~2417행)

또한 로사우라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세히스문도의 도움을 구하자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에 대한 감정에 다시 한번 흔들린다. 그러나 이내 그는 과거의 승리조차도 꿈과 같은 것이며, 이제 그는 쾌락이 지나가는 바람에 재로 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불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왕자의 임무는 여성의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에게서 돌아선다.

로사우라가 내 수중에 있다.
영혼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기회를 즐겨야겠지,
[...]
그러나 이제 이성이
다시 나를 설득하는구나.
[...]
로사우라에게는 명예가 없다.
그렇지만 명예를 뺏는 것보다는
주는 게 왕자의 도리겠지. (2958~2988행)

2막에서의 실험에서 교훈을 얻은 세히스문도는 이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왕자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세히스문도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로사우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결국 세히스문도는 각 개인의 미래는 점성술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경험과 이성으로 인한 자신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점성술의 영향력을 극복한다. 결국 바실리오스는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실패했다.

『인생은 꿈이다』는 점성술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바실리오스의 계획이 실험과 관찰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세히스문도의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와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과학혁명이 절정에 달했던 17세기에 구시대 의사 과학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관점의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바실리오스가 신봉하던 점성술은 과학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합법적이고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의 한 분야이기도 했다.⁹⁾ 그

9) 과학혁명이 시작된 16, 17세기에도 수학과 점성술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학이 4학(學, 산술, 음악, 기하, 천문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수학의 기원은 점성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수학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Nicholas Popper(2006), “Abraham, Planter of Mathematics: Histories of Mathematics and Astrology in Early Modern Europ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7(1), 96-97. 또한 1611년 세바스티안 데 코바루비아스가 편찬한 사전 『보석 같은 스페인어 *Tesoro de*

러나 과학혁명의 발전으로 점성술의 과학적인 가치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꿈이다』는 언어와 감각과 곁에 보이는 현상을 전체의 도구로 삼는 의사 과학을 비판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점성술에 경도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실리오스는 결국 세계를 망상적인 지식으로 조망했던 것이며(C. Christopher Soufas y Teresa Scott Soufas 1989, 298), 그의 구시대적 과학관은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된다.

4. 결론

지금까지 17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연극작품인 칼테론 데 라 바르카의 『인생은 꿈이다』를 구시대적 과학과 새로운 시대의 과학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칼테론 데 라 바르카는 『인생은 꿈이다』에서 각각의 막을 구시대 과학에서 새로운 시대의 과학으로 전환되는 과학적 실험의 단계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막에서는 바실리오가 별자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고, 2막에서는 바실리오와 클로탈도가 세히스문도를 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궁전으로 들어가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며, 3막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과 열정과 신중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히스문도가 결국 이성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막에서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580행)와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 박사”(580행)로 불린 바실리오스는 신중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보여주지 않고 별자리를 통해 한 인간과 국가의 미래를 단정한 의사 과학의 애호가일 뿐이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보다는 유사성에 의한 추론을 통한 이성화를 더 보여주었다. 그의 의사 과학은 분명히 근대 과학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경험과 필수적인 증명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학과 그 방법론이 초자연적 세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혼했던 이런 태도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정밀성, 물리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도 당시까지 수학이 “기하학, 음악, 산술 및 점성학”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현상의 정량화,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근대 과학의 모델로 대체되었다(Crosby 1998, 31, 57).

특히 『인생은 꿈이다』가 출판된 1635년 무렵에 새로운 과학관이 구시대의 과학관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세계모니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시기 과학계에서 이러한 두 세계의 충돌을 다룬 걸작으로 1632년에 발표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 :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 *Dialogo sopra i due massimi sistemi del mondo*』가 있다. 이 작품은 갈릴레이가 당시 지배적인 천동설을 주장하는 천문학에 맞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내용은 책으로, 천동설을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상 대화를 구성한 작품이다. 이처럼 당시 지성계는 이런 두 세계의 과학관의 충돌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충돌은 당시 지성계의 화두 중의 하나였다. 칼데론 데 라 바르카 역시 이런 화두를 연극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인생은 꿈이다』라는 문화를 통해서 점성술이라는 의사 과학, 낡은 과학을 이용해 별을 잘못 해석한 바실리오 왕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구시대 의사 과학이 16, 17세기 과학혁명의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대체되는 복잡한 과정을 연극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갈릴레오 갈릴레이(2020),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세계에 관하여』, 이우현 옮김, 사이언스북스.
- 김선욱(2003), “『인생은 꿈이다』에 나타난 꿈과 현실의 형이상학적 문제”, 『스페인어문학』, 27, 259-276.
- 이종필(2020), “과학혁명의 배경”, 『동아시아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4107>
- Arellano, Ignacio(2006), “Grandes temas de los dramas de Calderón y su pervivencia”. *El escenario cósmico: estudios sobre la comedia de Calderón*, Madrid: Iberoamericana, 17-32.

- Aylward, E. T.(2002), “A Question of Values: The Spiritual Education of Segismundo in Calderón’s *La vida es sueño*”, *Bulletin of the Comediantes*, 54(2), 339-72.
- Brewer, Brian(2011), “Las matemáticas sútiles o los límites del saber en *La vida es sueño*”, *Bulletin of Spanish Studies*, 88(44), 487-521.
- Brioso, Jorge(2004), “¿Cómo hacer cosas con los enigmas?: *La vida es sueño* o el drama del desenganño”, *Bulletin of the Comediantes*, 56(1), 55-75.
- Calderón de la Barca(1986), *La vida es sueño*, Ed. de Ciriaco Morón, Madrid: Letras Hispánicas.
- Capelle, Wilhelm(1958), *Historia de la filosofía griega*, Trad. de Emilio Lledó, Madrid: Gredos.
- Cilveti, Ángel L.(1971), *El significado de La vida es sueño*, Valencia: Albatros Ediciones.
- Covarrubias, Sebastián de(1995), *Tesoro de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 Madrid: Castalia.
- Crosby, Alfred W.(1998), *La medida de la realidad: La cuantificación y la sociedad occidental, 1250-1600*, Trad. de Jordi Beltrán, Barcelona: Crítica.
- Dunn, Peter(1953), “The Horoscope Motif in *La vida es sueño*”. *Atlante*, 1, 187-201.
- Morón Arroyo, Ciriaco(1982), *Calderón: Pensamiento y teatro*. Santander: Sociedad Menéndez Pelayo.
- Popper, Nicholas(2006), “Abraham, Planter of Mathematics: Histories of Mathematics and Astrology in Early Modern Europ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7(1), 87-106.
- Pring-Mill, Robert D.F.(1970), “La victoria del hado en *La vida es sueño*”, *Hacia Calderón. Coloquio anglogermano*, Ed. de Alexander A. Parker y Hans Flasche, Berlín: Walter de Gruyter & Co., 53-70.
- Reale, Giovanni & Antiseri, Dario(1992), *Historia del pensamiento filosófico y científico. T. II*, Trad. de Juan Andrés Iglesias, Barcelona: Herder.
- Ptolemy (1940), *Tetrabiblos, Vol. I & II*, Trans. and ed. by Frank E. Robbin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si, Paolo(1992), “El científico”, *El hombre barroco*. Ed. de Rosario Villarri, et al., Madrid: Alianza, 319-348.
- Rutkin, H. Darrel(2010), “The Use and Abuse of Ptolemy’s *Tetrabiblos* in Renaissance and Early Modern Europe: Two Case Studies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and Filippo Fantoni)”, *Ptolemy in Perspective: Use and Criticism of his Work*

-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Ed. of Alexander Jone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135-149.
- Sambursky, S.(1970), *El mundo físico a fines de la Antigüedad*. Trad. de León Mirilas, Buenos Aires: EUDEBA.
- Santo-Tomás, Enrique García(2009), “Fortunes of the Occhiali Politici in Early Modern Spain: Optics, Vision, Points of View”,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24(1), 59-75.
- _____(Ed.)(2019), *Science on stage in early modern Spain*,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 Soufas, C. Christopher y Soufas, Teresa Scott(1989), “*La vida es sueño* and Post-Modern Sensibilities: Towards a New Method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tudies in Honor of Bruce W. Wardropper*, Eds. of Dian Fox, Harry Sieber and Robert Ter Horst, Newark: Juan de la Cuesta, 291-303.
- Tester, Jim(1987), *A history of western astrology*, New Hampshire: Boydell and Brewer.

김선욱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seonukk@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23년 1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28일

한국바로크학회 정관

2011년 4월 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본부)

1. 본회는 한국바로크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Baroque Studies로 한다.
2. 본 학회 본부는 회장의 재직 기관에 둔다.

제2조 (목적)

한국바로크학회는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건축, 영화 등 제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제 분야를 가로지르며 바로크 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천착하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의 미학적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 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이사회의 소관으로 한다.

1. 학술 활동

- 가. 정기학술발표회를 매년 6월과 11월에 개최하며,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나.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 다.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문화행사와 강연회를 개최 또는 후원한다.

2. 출판 및 정보 관련 사업

- 가. 학회 학술지 '바로크연구(The Baroque Studies)'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 나. 학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배포한다.

다. 연구발표회나 강연회 등 학술 교류에 따른 자료를 간행하고 배포한다.

3.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 가. 국제 행사를 유치, 지원한다.
 - 나.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 다. 한국의 학술 및 문화 정보의 해외 보급에 앞장선다.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 가.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 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3. 준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사 및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4. 특별회원이란 연구, 교육, 문화교류 면에서 뚜렷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본 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 혹은 기관을 말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본 회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총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게재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들을 배포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학회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 자격 제한 및 회복)

회원 자격의 제한 및 회복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 미납 당해 연도에 한해 본 정관에 정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본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연체회비 납부와 동시에, 제3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는 이사회의 사면 결정과 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회장 직무 대리, 재적 이사가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각 회원에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감사가 직무 수행 중 발견한 중대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다. 회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 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될 수 있다.
6. 전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위임받은 다른 회원은 그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4. 이사회의 업무 보고 접수 및 사업 계획 승인
5. 기타 관례에 따라 총회에 속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그 안전과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 되지 못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경미한 내용의 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권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각각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결은 회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2.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
3.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학회의 장기 발전 계획 및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수립
6.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등 예산에 관한 심의와 의결
7. 학회 정관과 편집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
8. 편집위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정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10.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1인 및

총무이사 · 재정이사 · 학술이사 · 출판이사 · 홍보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된다.

2. 본 학회에는 1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투표 방식은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
2.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고문이 된다.
3.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은 자문위원 등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6. 감사는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 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라.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부서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 마. 기타 관례에 따라 회장의 고유 권한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2인 중 1인은 편집, 출판 및 기타 학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나머지 1인은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본 회의 이사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아래에 정하는 바 각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 가.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조정하고 통괄한다.
 - 나. 재정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 다. 학술이사는 국내외의 학술 및 교육 정책 기관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마.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를 편집 및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석 부회장과 총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의 감사
2.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 결과 불비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4. 회계 연도 말의 결산 보고서에 대한 확인(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

제5장. 편집위원회

제2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장은 편집위원회장이 맡는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이 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판이사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본 학회의 편집위원으로서 본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관 학회나 해외의 유관 학교 또는 학회에 소속한 유명 학자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학회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은 비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그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다.

1.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투고 요건 검토
2.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 및 게재 결정
3. 학회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회의 학술 관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5. 국내외 학자들의 투고 관련 교류 및 정책 심의
6.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투고 요령 및 논문작성 요령 등 학술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편집위원회 고유의 업무

제24조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편집위원회와 투고 요령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모든 회원의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정기 회비
 - 가. 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 나. 준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만원으로 한다.
 - 다. 기관회원(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
3. 평생 회비
 - 모든 회원의 경우 평생 회비 3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며, 이 경우 정기 연회비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4. 특별 회비
 - 가. 특별 회비란 일반 회원의 비정기적 특별 회비와 특별 회원의 가입 회비를 말한다.

나. 특별 회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5. 찬조금 및 기부금
6.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 조성비와 보조금 등
7.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 (회비의 결정 및 입금)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회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회비의 입금은 소정의 학회 규좌로 하도록 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가 편성, 의결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재정 결산보고)

각 회계 연도별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이사가 매 11월의 정기 총회에서 행하며, 필히 감사의 확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일자) 본 정관은 2011년 4월 9일에 제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바로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본 위원회는 한국바로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한국바로크학회 회칙 제 21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 3 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건축, 영화 등 제 인문학과 건축학,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 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국제성을 제고하고 학제 간 학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해외 저명 학자나 유관 학회의 전문가를 제5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편집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를 임명하며, 편집간사는 투고안내, 투고신청서 및 논문의 접수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3장 활동

제 8 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바로크연구』의 체제와 발간, 횡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제 9 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10조 학회가 학회 학술지 이외에 학술 서적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간행위원회를 둔다.

- 제11조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일정 수를 추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 제12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제안 및 의결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학회가 기타 학술 관련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간행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제14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를 확인해 준다. 단,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 제16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제17조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제18조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동일 소속 학교에 따른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해, 심사대상 논문(심사용 논문), 심사서 양식 등과 함께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심사위원은 심사서 양식에 명시된 6개 평가항목에 따라 의뢰받은 논문을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총평가 아울러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의 창의성(20점)
- ② 내용의 적절성(20점)
- ③ 전개의 논리성(20점)
- ④ 형식의 적절성(20점)
- ⑤ 활용도와 기대효과(10점)
- ⑥ 배경지식의 정도(10점)

단, 논문작성양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사전에 논문양식 검토위원단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접수보류나 반송을 결정하므로, 논문작성양식의 부합성에 관한 항목은 제외한다.

제21조 심사위원은 위의 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고 심사위원 3인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게재가능” 판정을,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70점 미만일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준다.

제22조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린다. 심사결과의 판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게재가능 :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
- ②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③ 수정 후 재심 :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④ 게재불가 :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제23조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 결과와 평균 점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서의 수정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기한 내에 최종본을 제출하면 조건 없이 게재하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서의 수정제안 사항에 의거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기한 내에 최종본을 제출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전면 수정 후 다음 호에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2회에 걸쳐 받은 경우 그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후 투고할 수 없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 제24조 학술지는 1년에 1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12월 31일로 한다.
- 제25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 제26조 게재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 제27조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게재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 제1조 편집위원회가 제출한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며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바로크연구』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제출

- 1) 본 학술지는 매년 1회(12월 31일)에 발간한다.
- 2) 원고모집은 매호 발행일 45일 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지의 게재대상은 바로크와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으로, 본지 이외의 간행물(온라인 포함)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계획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 4) 동일 필자가 한 호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 5)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의 투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논문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의 이메일로 투고한다. 학회의 이메일주소는 baroquestudies@daum.net 이다.
- 6)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바로크학회에 있다. 저자의 투고행위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내·외부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실어 공개할 수 있다.

2. 논문작성 양식

- 1)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으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논문 본문 사용언어는 한글과 영어로 제한한다. 초록은 영문과 국문 두 가지 언어로 두 개를 작성한다.
- 2) 논문의 분량은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내로 하되, 논문 내에 삽일 될 그림이나 도표 등은 투고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지정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글 2002 기준을 따른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A5(신국판) 폭 : 148mm 길이 : 225 mm	위쪽	15mm	변경	좁게
	아래쪽	15mm	변경	
	왼쪽	20mm	변경	
	오른쪽	20mm	변경	
	머리말	10mm	변경	
	꼬리말	10mm	변경	
	제본	0mm		

4)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구분		글꼴	크기	정렬 방식	여백	첫줄	줄간격	장평	자간
제 목	논문제목	신명조 진하게	14pt	중앙	-	-	160%	95%	-5
	장제목	신명조 진하게	12pt	양쪽					
	절제목	중고딕	11pt	양쪽					
	세부제목	중고딕	11pt						
	참고문헌	신명조 진하게	12pt	중앙			130%		
	논문초록	신명조 진하게	9pt	양쪽					
본 문	본문	신명조	10pt	양쪽	-	들여쓰기 10pt	160%		
	인용문		9pt		양쪽 20pt	-	130%		
	각주		8pt		-	내어쓰기 10pt	130%		
	참고문헌		9pt		-	내어쓰기 30pt	160%		
논문초록			9pt		-	들여쓰기 10pt	130%		

(1) 제목

- ① 논문제목 : 글꼴 신명조, 진하게, 크기 14pt, 장평 95%, 자간 -5, 중앙정렬
- ② 장제목 : 글꼴 신명조, 진하게, 크기 12pt, 장평 95%, 자간 -5, 왼쪽정렬
- ③ 절제목 : 글꼴 중고딕,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5, 왼쪽정렬
- ④ 세부제목 : 글꼴 중고딕,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왼쪽정렬
- ⑤ 참고문헌 : 글꼴 신명조, 진하게,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중앙정렬
- ⑥ 논문초록 : 글꼴 신명조, 진하게,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중앙정렬
- ⑦ 투고자 인적사항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중앙정렬

(2) 논문초록

-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 ② 문단모양 : 줄간격 130%, (문단 첫째 줄) 들여쓰기 10pt
- ③ 주제어(Key Word) : 글꼴 신명조, 진하게, 크기 9pt, 줄간격 130%, 내어쓰기(영문 55pt, 국문 32pt)

(3) 본문

-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 ②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 첫째 줄) 들여쓰기 10pt

(4) 인용문

-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 ② 문단모양: 줄간격 160%, (문단 첫째 줄) 들여쓰기 10pt, 왼쪽여백 20pt, 오른쪽여백 20pt
- ③ 인용문과 인용출처 사이에 한 칸을 띄어 쓰고, 인용출처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또한 기차도 ~ 휩싸였다(보르헤스 1993, 279)”.

- ④ 3줄이 넘는 긴 인용문의 경우 위와 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댄다. 인용문과 본문 사이, 인용문과 인용문 사이의 줄간격은 본문과 같게 한다.

(5) 본문주 및 각주

- ① 글자모양: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 ② 문단모양: 줄간격 130%
- ③ 논문에서 서지사항을 밝힐 때는 저자명, 출판 연도 및 쪽수만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본문주를 사용해도 되고, 각주를 사용해도 된다. 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④ 본문주나 각주에서 서지사항은 모두 저자명, 출판 연도, 쪽수를 표기하되, 쪽수는 p.나 pp.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서지사항을 표기할 때는 “ ; ”로 나눈다.

(예) 본문주 및 각주의 기본양식 : (Rizzi 1997, 127-128) 혹은 (송상기 2015, 23; 김선욱 2017, 45)

(6) 참고문헌

- ① 글자모양: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 ② 문단모양: 줄간격 160%, 내어쓰기 30pt

(7) 저자명과 연구 참여 구분 및 소속

- ① 저자명: 글꼴 신명조, 보통, 크기 10pt,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5, 오른쪽 정렬
- ② 연구 참여 구분/소속 : 글꼴 신명조, 보통, 크기 10pt,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5, 오른쪽 정렬

5) 번호 및 부호

(1) 번호

- ① 장제목 번호 : I., II., III., ... (글자모양은 위의 “(1) 제목” 참조)
- ② 절제목 번호 : 1., 2., 3., ... (글자모양은 위의 “(1) 제목” 참조)
- ③ 세부제목 번호 : 1), 2), 3), ... (글자모양은 위의 “(1) 제목” 참조)

(2) 부호

- ① 본문 중 인용 부분 : 겹따옴표 “...”
- ② 인용 속의 인용 : 홑따옴표 ‘...’
- ③ 단행본 제목 : 겹낫표 『...』 (문자표 - 반각 기호 사용)
- ④ 논문, 시 등의 제목 : 홑낫표 「...」 (문자표 - 반각 기호 사용)
- ⑤ 인용 시 필자의 중략 : 대괄호 [...]
- ⑥ 일간지, 잡지, 영화, 연극, 음악 등의 제목 : 겹꺼쇠 《...》를 사용하고, 작품 안의 소제목은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예) 《군항도》, 《겨울나그네 Winterreise》 중에서 ‘우편마차 Die Post’,
- ⑦ 표와 그림의 제목을 표기할 때, 홑꺼쇠 〈...〉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기한다.
(예) 〈표 1〉, 〈그림 2〉

6) 한글과 원어를 병기할 경우, 원어는 괄호로 묶는다. 한번 쓴 원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또한 저서, 단행본, 논문 등의 제목일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기입 방식을 기본 형태로 따르되 괄호로 묶지 않는다.

(예) 카르마(Karma), 『햄릿 Hamlet』

7) 논문초록은 반드시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며, 초록의 제목으로 **저자명(연도), 제목, 본 학술지 명칭**을 차례로 명기하고 초록 본문이 시작되게 한다. 초록의 분량은 가급적 1쪽을 넘지 않게 하며, 반드시 논문의 제목과 본문 사이의 위치에 작성한다.

- 8) 주제어(Key Words)는 영문초록 다음에 논문의 핵심어를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 영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 다음에는 한글로 작성한다. 외국어 주제어의 경우 첫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주제어는 초록 본문과 한 줄 띄어 작성한다.

(예) Key Words: Luis Martin Santos / Experimental Novel / Spanish Literature

주제어: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 / 실험 소설 / 스페인 문학

- 9) 논문제목 아래에 저자명을 명기하고 한줄 아래 소속기관명과 직책을 함께 명기한다.

(예) 홍길동

○○대학교 교수

- 10) 공동 연구 논문이면,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괄호 안에 역할과 소속기관명과 직책을 명기한다. 그리고 각각의 저자는 줄을 바꾸어 명기한다.

(예) 홍길동(제1저자, ○○대학교 교수)

이지배(교신저자, ○○대학교 교수)

연홍부(공동저자, ○○대학교 교수)

- 11) 미술 관련 논문에서 본문에서 도판이나 도판 목록

(1) 해당 도판이 언급되는 문장 끝에 도판 번호를 붙여준다.

(예)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도 9).

(2) 도판목록은 “(도판번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매체, 작품크기(세로 x 가로)cm, 소장처” 순으로 작성한다. 원어명일 경우 “한글(원어)” 원칙을 준수한다. 동일 작가의 도판이 제시되는 경우 외국 작가는 성만 한글로 작성한다.

(예) (도 1) 자크-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호라티우스가의 맹세 The Oath of the Horatii〉, 1785, 캔버스에 유채, 330 x 425 cm, 루브르 박물관

(도 2) 다비드, 〈마라의 죽음 The Death of Marat〉, 1793, 캔버스에 유채, 165 x 128 cm, 벨기에 왕립미술관

(도 3) 김홍도, 〈군선도〉, 1776, 종이에 담채, 132.8 x 575.8 cm, 호암미술관

- 12) 참고문헌

(1) 단행본은 가나다, ABC순으로 배열하며 동일저자의 여러 저작이 포함될 경우 오래된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국내문헌을 먼저 배열하며 **저자(연**

도), **도서명, 역자명,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순으로 작성한다. 도서명은 한국어 단행본(학술지 포함) 『』(반각기호)로, 외국어 단행본(학술지 포함)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도서명과 부제를 병기할 경우 쌍점(:)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 신정환(2006), 『세르반테스 아포리즘』, 서울: 오늘의 책.

세르반테스, 미겔 데(2014), 『돈키호테』, 안영옥 역, 파주: 열린책들.

Fischer, Susan L.(2008), *Reading Performance*, Woodbridge: Tamesis.

(2)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순으로 작성하며, 한글 논문의 경우는 「」로 표시하고, 외국어 논문은 “ ”로 표시한다.

(예) 송상기(2005),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대안으로서의 바로크적 에토스 연구」, 『스페인어문학』, 36, 447-463

Torrego, Ester(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15, 88-109.

(3)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의 표기는 **저자(연도), 논문명, 편저자명(편/ed(s)), 단행본 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예) 선우건(2003), 「교육과 정책: 사적추이와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김우택(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소화, 713-767.

Pedro, Barea(1999), “Guernika y El Cuernica en el teatro”, Jose Romera Castillo y Grancisco Gutierrez Carbajo(eds.), *Teatro Historico*, Barcelona: Visor, 583-594.

(4) 학위논문은 **저자(연도), 학위 논문명, 박사(석사)학위 논문, 대학교명** 순으로 작성한다.

(예) 최정은(2018), 『콜라주, 그 탈구된 시간의 반복과 다층성: 로버트 라우센버그, 프레드 토마셀리, 크리스티안 마클레이의 아카이브적 중층텍스트』,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Shin, Taeshig(2005), *Sintaxis diacrónica y sintáctica de la colocación en los pronombres clíticos de objeto en el Español Medieval*, Tesis doctoral, UAM.

(5) 악보의 경우, **작곡가(연도), 곡명, 편저자명(편/ed(s)),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순으로 작성한다.

Verdi, Giuseppe(1982), *Rigoletto: Melodrama in Three Acts by Francesco Maria Piave, Martin Chusid(ed.), in The Works of Giuseppe Verdi, series 1, Operas*, Chg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음반의 경우, **작곡가(연도), 곡명, 연주자** 순으로 작성한다.

Bach, Johann Sebastian, The Brandenburg Concertos,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7) 인터넷 자료는 **저자(연도), 기사명, 인터넷주소, 검색날짜(년, 월, 일)** 순으로 명기한다.

(예) Rama, Claudio(2007), “La transformación de las industrias culturales en industrias educativas con la digitalización”, <http://www.virtualeduca.org/idve/3/articulo.htm> (2010.08. 23).

12)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문헌의 하단에 작성한다.

(예) 홍길동

서울시 성북구 xxx xxxx (주소를 쓴다)

E-mail:

3. 논문의 심사비와 게재료

1) 논문의 심사비는 6만원이다.

2) 연구비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수혜 논문 : 편당 30만원이다.

(2) 일반논문 :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아닌 경우, 전임 10만원, 비전임 무료이다.

4. 투고자 제출서류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동의 및 연구윤리서약서와 논문유사도 검사서를 제출한다. 생존 예술가에 대한 인터뷰는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IRB 교육 수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한국바로크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8년 5월 1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바로크학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학회의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바로크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침삭하여 위변조하는 경우이며,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및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4) 동일 저자의 학술지 중복투고 -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을 본 학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5)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 - 회원 및 연구자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를 본 학회를 통해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연구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할 경우

- 6)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편집회의에서 해당 제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규정

제4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논문의 분야와 일치하는 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저자공개금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지위 등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 익명성)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제7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만일 논문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8조(심사과정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과 논의해서도 안 된다.

제9조(심사표현)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제10조(인용금지)

심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징계절차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학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 심의 안전에 따라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 1)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특히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에 관한 사안일 경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의 발견이나 제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이나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2)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연구자의 논문 게재취소, 일정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단 징계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회원들에게 공지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15일부로 시행한다.

◆ 한국바로크학회 임원진

- 전임회장 신정환 (한국외대), 송상기 (고려대), 이가영 (성신여대)
- 회장 김선옥 (고려대)
- 부회장 한명식 (대구한의대)
- 총무이사 유선옥 (성신여대)
- 편집이사 손수연 (홍익대)
- 학술이사 김용현 (고려대), 박영욱 (숙명여대), 최병진 (한국외대)
- 섭외이사 김기봉 (경기대), 최정은 (한국외대)
- 출판이사 최은경 (서울대)
- 정보이사 박상원 (한국외대)
- 재무이사 김선이 (한국외대)
- 감사 이계웅 (한국할리데이비스)

◆ 한국바로크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손수연 (홍익대 예술학과, 미술사학)
- 편집위원 송상기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문학)
- 이가영 (성신여대 작곡과, 음악학)
- 최병진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미술 및 박물관학)
- 한명식 (대구한의대, 건축학과, 건축학)
- 박영욱 (숙명여대 교양학부, 철학)
-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서양사)
- 김세건 (강원대 인류학과, 인류학)

바로크연구

인쇄 : 2023년 12월 30일

발행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바로크학회

발행인 : 김선욱

주소 :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한국바로크학회 편집위원회

전화번호 : (02) 3290-2156

전자우편 : baroquestudies@daum.net

홈페이지 : www.baroquestudies.com

인쇄처 : 한국바로크학회

The Baroque Studies

Vol. 6, December, 2023

Articles

Kim, Seon-UK

Scientific Revolution and Baroque Arts : New concepts of mathematics and science in *Life is a dream*

한국바로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Baroque Studies
<http://www.barquestudies.com>



9 772636 089001

ISSN 2636-0896